

전남도 “고향사랑기부 포인트 사용하세요”

설 명절에 미사용 활용 권장 기부액 30%...잔여 5600만원 답례품 300여개 구매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전남도가 이번 설 명절에 고향사랑기부 후 생성된 기부 포인트를 활용한 답례품 구매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포인트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청으로 2023년 6억3200만원, 지난해에는 8억

8000만원 등 2년간 15억1200만원이 모금됐다.

이로써 기부금액의 30%인 4억5300만원이 고향사랑e음 기부 포인트로 생성됐으며 이 가운데 3억9700만원의 기부 포인트는 답례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600만원은 기부자들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지난 연말 기부가 몰리면서 일부 기부자들이 연말이 아닌 다른 시기에 답례품을 주문하려다 포인트 사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설을 앞두고 지역 답례품 구매를 유도해 최근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부자들이 그 답례품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향사랑e음 기부 포인트 사용 및 방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에 로그인하면 상단에 표시된 본인의 기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기부 포인트는 고향사랑e음에서 유효기간인 5년간 보관되고, 회원 탈퇴를 하면 기부 포

인트가 삭제된다.

기부자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 자신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고, 부족한 기부 포인트는 재기부를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설을 맞아 있고 있거나 사용을 미룬 기부 포인트를 활용하면 300여 개가 넘는 전남도

답례품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며 “기부자들께서 사용하는 기부 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기부도 가능해졌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농업기술센터, 지역 선도농업인 10명 선발

농업기술 지도자·현장 강사 활동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2025년 선도농업인’ 10명을 선발한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농업인을 발굴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할 수 있는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선도농업인을 육성한다. 선발 대상은 △전문적인 기술력 △교육자적 소양 △지역 내 신망을 갖춘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경영체 농업인이다.

선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선도농업모

델화 교육을 통해 리더십을 강화하고, 고도전문농업인 교육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지역농업 리더로서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지도자(멘토)와 농업현장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도농업인은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인재”라며 “역량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우치동물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올해 천연기념물 보존관 완공

광주시가 우치동물원 동물병원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했다.

우치동물원 동물병원은 진료 수의사 2명이 기존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에 나선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치동물원은 특히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천연기념물 보존관’이 문을 열고 사고 등으로 다친 천연기념물 야생동물을 치료소에서 치료한 뒤 재활·적응 훈련을 거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

우치동물원은 이를 위해 올해 동물응급

수술차, 내시경, 혈액전해질분석기, 혈관병합기, 유전자분석기 등을 추가로 구입해 의료장비를 보완할 예정이다.

우치동물원은 그동안 사육농가에서 구조된 반달가슴곰, 야생에서 구조된 수달 등 천연기념물 동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7종 74마리의 천연기념물 동물을 보호·치료했다.

성창민 광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동물을 전시·관람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훈련·방사를 통해 생태 순환과 종보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약사회, 참사 유가족에 영양제 꾸러미 지원

비타민 드링크 등 구성 봉사약국 이은 나눔활동

전남도약사회가 13일 장례를 마친 뒤 되돌아온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500만원 상당의 영양제 꾸러미를 지원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양제 꾸러미는 비타민 드링크 10병, 비타민 알약 10정, 면역 영양제 7병, 청심원 3병으로 구성됐다.

조기석 전남도약사회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가족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라도 영양제 꾸러미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는 지난 2일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해 봉사약국 근무를 순차적으



전남도약사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에게 지원한 영양제 꾸러미.

전남도 제공

로 진행하고 있다. 봉사약국은 약물 복용과 관련된 상담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다.

오지현 기자



퇴임통장 간담회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13일 동구청 접견실에서 퇴임통장 간담회를 갖고 퇴임 통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광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높였다

가입 캠페인 이후 34.3%로 상승 공제료 60%...최대 12만원 지원

광주시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말 광주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수는 916개소, 이 중 화재공제 가입률은 34.3%로 집계됐다.

이는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 이전인 2023년 12월 말 793개소 27.5%보다 크게 상승한 것이다. 또 서울 24.3%, 부산 29.8%, 대구 29.4%, 세종 22.8%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치다.

여기에 민간화재보험 가입 점포를 합산

하면 광주지역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74.8%에 달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 이후 상인들의 화재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장을 포함한 공직자들은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 24개 전통시장을 찾아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을 펼쳤다.

설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들을 찾아 화재공제 가입 때 지원 조건을 설명하는 등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했다. 광주시는 올해도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공제 가입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열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설 연휴 이용객이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지자체와 상인회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관리 및 화재 예방에 힘을 합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2023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시비 30%, 구비 30%)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공식누리집 개설

대회소식·경기일정·결과 제공 관광명소·먹거리 안내 등 역할

광주시는 오는 9월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공식누리집(www.gwangju2025.com)을 개설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누리집은 △대회 소개 △세계양궁연맹 △개최도시 △알림소식 △경기일정 및 결과 등 5개 메뉴로 구성, 한눈에 대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회 참가선수들과 광주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와 먹거리 정보를 제공해 종합 가이드 역할을 한다. 대회 종료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신속·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누리집 개설을 기념해 13일부터 22일까지 ‘양궁이 온다’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대회 결승경기 와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배경장소를 확인하고, 이벤트 게시판에 정답과 참여자 정보를 남기면 된다.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당첨자 110명을 선정, 치킨·커피 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응원메시지 작성 이벤트를 13일부

터 9월30일까지 진행한다. 응원메시지를 랫돌리기 이벤트장에서 응원메시지를 작성하면 매일 20명을 추첨해 토스트와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공식누리집 개설을 통해 대회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대회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이번 대회가 성공적인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을 주제로 9월5일부터 12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결승) 등에서 열린다. 이어 22일부터 28일까지는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노병하 기자